

2008 년아시아주 법회에 파룬궁수련생들이 서울에서 성대한 시위행진을 거행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서 온 1500 여명 파룬궁학원들이 지난 11 월 1
일에 한국에서 개최한 2008 년아시아파룬따파수
련심득교류회에 참가했다.이튿날 아침,파룬궁학
원들은 서울올림픽거리에서 성대한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파룬궁학원들로 구성된 “아시아천국악단”은
제일 앞장에 서고 중국민간특색이 있는 “요고
대”, “선녀대”와 한국특색이 있는 “고악대”
(鼓乐队)가 섞여있는 시위행진대오는 마치 꿈
틀거리는 한 마리 채색 큰 룡마냥 기세가 드높고
장엄했다.

중국에서 온 김선생은 “천국악단”의 연주를
감상하고나서 기자에게 《중국에 있을때 자사자
리하고 도덕이 부패한 중국의 현실은 나를 실망
하게 했지만 여기서 처음 천국악단의 연주를 듣는
순간, 지구에로 울려오는 희망의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 자꾸만 격동되는 마음을 억누를수 없 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시위행진대오를 뒤따라 온 중국사람 백씨는 《이

전엔 중공의 거짓 선전만 듣고 파룬궁학원들을
미워했지만 한국에 와서 “천안문분실자살사건”
진상사건 등 자료를 보았고 파룬궁학원들과 친
구로 사귀었습니다.오늘 이 성대한 시위행진을
보면서 백성을 속이는 중공을 나는 몹시 분개합
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파룬따파학회 대변인은 《한국에서 파
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다
수는 지식계층의 고급 인사들입니다.나는 법원
의공무원입니다.이전에는 제가 동사자들에게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해 주면 들척만척했지만 ‘3
록독분유사건’이 일어난 후, 그들은 파룬궁에
대한 화제를 즐겨 들고 있으며 파룬궁을 수
련하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 지금 련공장만하
더라도 200 여개나 됩니다.》고 말했다.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원 상해의과대학 부
주임의사 섭숙문은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후 파룬궁진상을 알게 된 수많은 대만 민중들은
지금 참담게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는데 근 50
만명에 달합니다.》고 말했다..

제1차세계중국인피아노
콩클이 원만히 결속



지난 11 월 12 일에 3 일동안의
경기를 거쳐 뉴욕맨하튼시 정
부 음악청에서 제 1 차신당인
텔레비전 전세계중국인피아노
콩클이 원만히 막을 내렸다.

정치의 외침소리



지난 11 월 3 일 저녁, 대만에 온 양안 해협회회장
진운림(陈云林)이 101 호텔밖으로 걸어나와 매체 의
질문을 받을 때 근 200 명 파룬궁 학원들이
《파룬따파가 좋다》 《파룬궁박해를 정지하자》라 고
높이 외쳤다. 주위에는 《세계는 '진선인'을 수요
한다.》라고 쓴 프랜카드를 펼쳐 들었다.

차는 망그러졌지만 사람은 무사



지난 10 월 18 일 밤 1 시에 나의 동생이 석가장에서 창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번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현장에 가서 보니 “북두성”차가 형편없이 망그러졌다.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보니 나의 동생과 한 젊은이가 멀쩡히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몰려 온 이웃들은 이번

차사고의자초지종 경과를 듣고 나서 《신의 보호를 받았구만!》하고 감탄했다. 나의 동생은 《그럼요. 신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내가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3 퇴”(퇴당,퇴단,퇴대)를 했으니깐요.》라고 뽀뽀이 말했다.

바른 말을 하는 경비원

리덕정과 왕비는 동북 모 대형국영기업의 직원이다. 그들은 자가용차를 타고 출근했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경비원은 리덕문의 차를 검사하지 않고 통과시키지만 왕비의 차 안과 차 밑을 살살이 검사하곤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왕비는 주먹을 불끈 쥐고 경비원에게 달려 들었다.

《리덕정의 차는 한번도 검사하지 않지만 내 차는 왜 번마다 검사하세요? 그한테서 뭘 얻어가겠는가봐요.》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준게 없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종래로 공장에서 바늘하나도 가져 간적이 없네. 그러니 난 그를 전적으로 보증할수 있지만 당신을 보증할수 없네.》

《난 공산당원이오.》

《당신은 공산당원이 옳네. 난 한평생 이 공장에 있었네. 공장장으로부터 차간주임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원이 아닌게 없네. 전시 80%의 동과 철은 우리 공장에 있는데 어느 지도자가 동과 철을 훔쳐 가지 않았다고 감히 하늘에 보증할수 있어요?》

경비원의 정정당당한 말에 왕비는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다.



해외에서 기소당한 중공고급관원들

중공은 1999 년부터 파룬궁을 탄압한지 이미 9 년이 넘었다. 2000 년부터 2007 년까지

파룬궁학원들이 전세계 33 개 국가와 지역에서 “군체멸절죄”, “혹형죄”, “반인류죄” 등 54 가지 죄명으로 중국고급관원 강택민 등 30 명을 당지 법정에 기소를 했다.

기소 당한 중국고급관원들의 명단:

강택민, 종경홍, 라간, 가경립, 리란청, 황국, 오관정, 리장춘, 주영강, 류기, 하덕강, 조지비, 반신춘, 손가정, 류경, 박희래, 곽전걸, 진지립, 왕유생, 황태화, 왕옥동, 왕모림, 소경, 서광춘, 리원위, 가춘왕, 리염지, 조치진, 황화화, 장덕강.

악보 받은 연변공안계통 악인들

1999 년 7 월 20 일부터 중공이 파룬궁박해의 급선봉이 된 연변공안계통 악인들이 악보를 받았다. 아래 그중 일부분 사례만 열거한다.

박옥동,연길시공안국장.2004 년에 신장이 썩어 사망.
김기봉,룡정시공안국장.2006 년에 식도암으로 사망.
초빈,연길시국보부대대장.당뇨병, 심장병으로 생명 위급.
박용춘,연길시공안정보과원.뇌혈전이 엄중.
김승관,화룡시팔가자진공안부국장.심장병으로 생명 위급.
광산,돈화시국보대대 교도원.2005 년에 차사고로 사망.
단애군,화룡시립업국보대대 경찰.2008 년 심장병으로 사망.
마평렬,연길시구류소 소장.2007 년 뇌출혈로 사망.
소전명,도문시간수소 소장.2008 년에 뇌출혈로 사망.
최종덕,연길시하남가파출소 소장.2008 년에 차사고로 중상.

악보는 파룬궁학원들이 원하는 것이아니다. 중공의 거짓선전을 듣고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여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폭로

연변박해소식

지난 10 월 11 일, 연길시진학소학교 모 교원은 6 학년 모 반급에 와서 학생들에게 매개 소조마다 파룬궁을 반대하는 내용을 써서 바치라고 포치했다.